

서적 무단복제와 저작권보호

양영준

변호사

최근 검찰에서 외국출판사들의 각종 서적들을 무단복제한 사람들을 일부는 구속하고 일부는 불구속 입건하면서 다량의 무단복제서적을 압수한 사례가 널리 보도되었다. 저작권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서적의 무단복제로 구속까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저작권위반으로 구속사태에 까지 이른 것은 가슴아픈 일이라고 하겠다.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세계저작권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된지 2년이 경과하는 동안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그에 따라 저작권 분쟁사건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검찰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 1986년 91명이었던 것이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세계저작권협약이 발효된 1987년 218명, 1988년에는 323명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법집행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는 비난을 국내외로부터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 및 압수조치는 저작권법집행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정부에서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소유권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 1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에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특별단속 지시를 내린 바 있었고, 대검찰청에서는 다시 전국 각 검찰청에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려서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을 강력히 단속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각 검찰청에 지적소유권 담당검사를 지정하여 사건처리에 능률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상표침해사범에 대하여는 검찰, 경찰 및 특허청의 합동단속이 여러차례 있었으나 서적의 저작권침해 사범에 대하여는 특별한 단속활동이 없다가 이번에 강력한 단속을 벌이게 된 것이다. 특히 일부 침해사범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소급보호가 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하여도 상표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으로써 검찰의 강력한 집행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서적복제업계는 구태의연한 무단복제활동에서 벗어나 국내서적출판, 번역서출판 등 전업을 서둘러야 하겠으며 정부에서도 이들의 전업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입서적이 증가하게 되어 학생, 교수, 의사 등의 서적구입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입서적의 가격이 높을 경우, 번역서의 이용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서적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동안에는 국내 복제서적의 가격이 저렴하여 번역서를 출판하더라도 판매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점차 번역서를 출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번역을 통하여 국내 학문의 토양이 배양된 후에는 국내 전문서적의 출간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일부 전문분야의 경우 원서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말 용어조차도 없이 영문용어만을 쓴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우리 학문, 우리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이 국내 서적복제업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轉機가 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학문과 문화가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출판저널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1989년 10월 5일 제 49호
격주간·매월 5,20일 발행

표지인물 2 「韓國文獻學研究」 펴낸 柳鐸一 교수

리포트 4 韓·蘇 문화교류의 길을 열었다 / 李斗暎

컬러画報 24 “책은 평화와 진보에 봉사한다”

—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 스케치

연재기획 6 증언으로 염는 해방전후 출판계 (6)

— 조선출판문화협회 창립 전후

신간抄 9 조선지식인들의 日本觀 变천사

서평 10 李泰鎭 「朝鮮儒教社會史論」 — 鄭昌烈

朴廟石 「國土와 土地政策」 — 李兌一

11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 李基琮

정용석 「전환기의 통일논쟁」 — 金煉喆

12 데이비드 폐퍼 「현대환경론」 — 金相鍾

르까르도 두란 「鮮放神學의 理想」 — 박성준

13 金芳玉 「악장수, 神의 아그네스, 그리고…」 — 韓相喆

金文洙 「晚翠堂記」 — 金鍾会

화제의 책 14 法典에서 뽑은 여성사연구 자료

시론 16 연구대상·방법론의 편향성 개선돼야 / 金泰坤

내 책을 말한다 18 문화예술의 세계적 거장들과의 対話 / 金聖佑

화제작의 주변 20 영산강변 한 '농민공동체'의 삶 / 李明翰

출판화제 14 「聖書속의 세계」 출간기념 사진전

19 '모범장서가에 정우용·장기현씨

21 90년대를 향해 뛰는 젊은 詩人들

세계의 출판 22 역사가 블로크의 첫 伝記 출간·外

나의 학문편력 26 문헌大에서 만난 東歐학자들 / 金學俊

— 나의 해외유학 및 연구생활 回憶記 (3)

작품구상 17 역사소설 「歌客」 / 朴起東

저작구상 29 인류문명 발달의 종합적 조망 / 崔夢龍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 이색출판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프리즘 48 書評 유감 / 김태경

48 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

社告

50호기념 특집호 발행

늘 「출판저널」에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사정으로 발행일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다음호로써 통권 50호를 맞게 됩니다. 이에 50호 발행을 기념하고 아울러 1980년대라는 한 시대를 정리하는 뜻에서 '1980년대의 책의 문화'를 접두하는 특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10월 20일자로 발행될 예정이던 제50호를 특집 준비관계로 부득이 11월 5일자로 발행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9. 10. 5